

濟州島 巫歌 研究의 檢討와 展望

한창훈*

目次

0. 논의에 앞서
1. 서론
2. 秋葉 隆
3. 장주근
4. 진성기
5. 현용준
6. 이수자
7. 조동일
8. 결론

0. 논의에 앞서

이번에 백록어문학회가 주최하는 제7회 학술대회 전체 주제는 「제주의 언어와 문학」이며, 애초에 필자가 의뢰받은 주제는 「제주의 고전문학」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그 자료의 분포와 내용이 다양하면서도 방대한 제주의 고전문학 전체를 한 편의 논문을 통해 검토하는 일은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런 경우, 무리를 감수하면서까지 한 편의 논문에서 큰 영역을 다룬다면, 십중팔구 기존의 통념을 재확인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나름의 경험도 이런 판단의 이유가 되었다. 그리하여 결국 필자는 다양한 제주의 고전문학 중에서 우선 巫歌를 선택하고, 그간에 이루어진 연구사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나름대로 새로운 전망을 모색해 보게 되었다.

* 고려대·대진대 강사

제주의 고전문학 각 갈래에 대해서는 이미 선배 학자들이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고¹⁾,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는 제주문학의 정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묶어내 참고가 된다.²⁾ 제주의 고전문학을 연구하는 후학들은 이러한 훌륭한 연구 업적을 받아들여 더욱 보완하고 동시에 새롭게 연구를 펼쳐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³⁾ 필자는 평소에 말석에서나마 이러한 연구 과제에 동참해서 조금의 기여라도 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1. 서론

濟州島 巫歌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에 이루어진 자료 수집과 연구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檢討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관계되는 내용을 되도록이면 광범위하고 충실하게 담고 있는 서지의 목록 작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작업은 사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쉽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는데, 濟州島 巫俗과 巫歌의 경우 이것이 충실히 되어 있어 다행스럽다.

강정식의 조사⁴⁾에 의하면, 일제 강점기였던 1920년대부터 시작되어 1996년까지 이루어진, 濟州島 巫俗에 관한 문헌은 자료가 53편, 논저가 163편이며, 濟州島 巫歌에 관한 문헌은 자료가 14편, 논저가 121편이다.

여기서는 이처럼 많은 연구 업적 중에서, 특히 濟州島 巫歌 研究에 큰 기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주목하여,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연구 성과를 검토하는 방식은 논의의 편이를 위해, 연구사적 흐름에서 주목되는 연구자들을 시대순으로 뽑아내고, 이들의 관련되는 저작이 가지는 성과와 한계를 지적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검토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의 연구 과제에 대해서도 미흡하나마 같이 점검해 보기로 한다.

- 1) 제주도 무속과 무가에 대해서는 현용준, 민요에 대해서는 김영돈, 유배 문학에 대해서는 양순필의 연구가 있다. 필자는 운종계도 학부 시절 이들 세 분 선생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연유로 제주의 고전문학에 대해 학문적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속담에 대한 고재환의 연구도 빠뜨릴 수 없다.
- 2) 「제주문학의 정립」, 『탐라문화』 15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5) 참조 여기에는 김영돈(민요), 현길연(설화), 소재영(한문학), 김영화(현대문학)의 논문과 종합토론의 기록이 실려 있다.
- 3) 최근의 연구로는 김대행(민요), 김상조(김상조), 허춘(설화), 허남춘(시가), 현승환(설화·무가), 윤치부(산문·민요), 강정식(무가), 좌혜경(민요) 등의 연구가 주목된다.
- 4) 강정식, 「濟州 巫俗·巫歌 關係 論著 目錄」, 『백록어문』 13집 (백록어문학회, 1997)

2. 秋葉 隆

주지하다시피, 濟州島 巫歌를 포함하여 韓國의 巫俗 體系가 학술적으로 주목되고, 그 자료가 채록되어 활자화까지 된 것은 대부분 일제 강점기 시대에 日人 學者들에 의해서였다. 그리고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본격적 연구 성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 日人 學者중에서 특히, 경성제국대학 교수였던 秋葉 隆은 朝鮮 巫俗에 대한 광범위한 현장 조사를 통해 赤松智城과 같이 1938년에 『朝鮮 巫俗의 研究』 上·下권을 발간했는데⁵⁾, 여기에 서귀포 男巫 朴奉春의 구연본으로 16편의 본풀이 巫歌가 채록되어 있다. 이들의 채록본 중에서 「서귀포 향당 본풀리」, 「토산당 본풀리」, 「신중 도풀리」가 당산 본풀이 巫歌에 해당한다.

이 자료집은 구전 문화에 대한 선각적 인식과 자료 조사의 철저성 등 그 선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식민지 정책 수행을 위한 종교 사회화적인 기초 연구였으며 따라서 고의적으로 왜곡된 점이 많이 발견되는 등 그 폐해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폐해는 특히 이후에 나온 이들의 연구서를 통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⁶⁾

秋葉 隆은 『朝鮮民俗誌』에서, 특히 당산 본풀이 巫歌인 「토산당 본풀이」에 주목하고, 이를 기반으로 濟州島 蛇鬼信仰을 논하였다.⁷⁾ 그는 여기서 濟州島를 '蛇鬼文化圈'으로 설정하고, 이 蛇鬼로 상징할 수 있는 山村의 옛 문화가 과거에는 섬 전체에 번성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후, 龍神이며 風雨神인 영등할망으로 상징되는 한반도 본토에서 이입된 海村 新文化의 압박에 의하여 '蛇鬼文化圈'은 좁혀지게 되어, 결국 오늘날 제주도 동남쪽 정의현 지역에만 잔존하게 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은 蛇鬼를 믿는 동남쪽 토산리 사람들을 '蛇鬼에 憑依한 異邦人, 異文化'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다.

濟州島가 다른 지역에 비해 4뱀 신앙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1519년 己卯土禍로 인해 鎭島에서 濟州島로 이배되었던 金淨이 남긴 기록인 「濟州風土錄」에도, 濟州島에 뱀이 많고 그에 따른 信仰이 강하게 존재했다는 사실이 적혀

5) 자료편과 연구편 2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1938년 日本 大阪屋號書店에서 발간되어, 이후 朝鮮 巫俗 研究에 관여하는 日本과 韓國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국내에서도 심우성 에 의해 번역본이 나오기도 했다. 『조선 무속의 연구』 (동문선, 1991)

6) 최길성 역, 秋葉 隆 著, 『조선 무속의 현지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7) : 심우성 역, 秋葉 隆 著, 『朝鮮民俗誌』 (동문선, 1993) 참조

7) 심우성 역, 秋葉 隆 著, 『朝鮮民俗誌』 (동문선, 1993) pp. 239-266. 참조

있다. 즉 그는 濟州의 風俗에 대해서 '濟州인들이 귀신을 숭상하고 巫堂이 많으며 뱀을 신으로 받들고 있어서, 流配인들이 뱀을 죽여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뱀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못한다'⁸⁾고 개탄한다. 이는 濟州島에서의 뱀신앙의 연원이 오래되었음을 말해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金淨이 流配 生活를 보냈던 곳도 역시 정의현 지역이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濟州島의 信仰 體系가 뱀 신앙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秋葉 隆의 研究는 부분의 사실을 전체로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적어도 사전 지식 없이 그의 연구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제주도는 뱀의 섬'이라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그가 濟州島 전체를 '蛇神'도 아닌 '蛇鬼文化圈'으로 설정하는 데에서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그의 연구를 자세히 검토하면, 전체적으로 朝鮮의 巫俗에 대해, 그 '농촌성'과 '여성성' 그리고 '원시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⁹⁾ 여기서 '농촌성'은 곧 '여성적'이고 수용적이며 정체된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곧 朝鮮이 처한 後進性과 停滯性을 사실화하기 위한 담론으로 활용되었다. 또 그가 朝鮮을 '농촌형'으로 규정한 것은 당시 미국에서 유행한 농촌 사회학의 모델을 따른 것으로, 당시 朝鮮 社會가 자생적 근대화의 활력이 없는 사회임을 드러내는 논의로 이어진다. 또한 朝鮮 文化의 골격을 이루는 巫俗을 '聖과 俗의 文化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미분화 단계의 宗教'라고 규정하고, 초월적인 신에 대한 믿음 체계가 결여되었다고 분석함으로써, 결국 朝鮮을 미개 상태에 있는 社會라고 결론 내린다.

주지하다시피, 이런 연구 결과는 결국 일제의 조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의의 핵심을 이룬다. 그러나 이후 濟州島를 포함한 韓國의 巫俗을 연구하는 韓國人 學者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적절한 반론을 펴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연구 결과를 별 비판없이 대폭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이후 21 세월동안 韓國의 巫俗 研究 發展을 가로 막았다고 볼 수 있다.

3. 장주근

광복 이후 국내 학자로서 최초로 濟州島 巫俗과 巫歌에 대해서 체계적인 학문

8) 양순필, 『冲庵의 濟州風土錄 小考』, 『어문논집』 23집 (고려대 국어국문학 연구회, 1982) : 양순필, 『제주 유배문학 연구』 (제주문화, 1992) 참조.

9) 김성례, 『무속 전통의 담론 분석』, 『한국문화인류학』 22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90) 참조.

濟州島 巫歌 研究의 檢討와 展望

적 관심을 보인 이로 우선 장주근을 들 수 있다. 그는 濟州道 송당리와 상창리 등의 지역에서 현지 조사를 통해 당신 본풀이 巫歌를 채록하여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濟州島 巫俗과 巫歌에 대해 논했다.¹⁰⁾

그런데 그의 연구 업적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시기의 선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주요 관심이 주로 神話와 그에 관련된 문제를 해명하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¹¹⁾ 濟州島 巫歌가 주목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라 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당 본풀이의 구조 속에는 종교 관념의 체계와 실제의 문화사와 지리성이 반영되며, 신화적인 상상력이 종합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¹²⁾

濟州島 巫歌에 관한 장주근의 연구 업적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濟州島 堂神神話의 구조와 의미에 대한 체계화이다. 여기에는 ‘설화의 모티프들은 멋대로 우연스럽게 집성된 것이 아니라 고정된 구조성을 지닌다’라는 던데스의 연구 방법론적 전제가 깔려 있다. 그는 濟州島 당신 본풀이 무가를 분석하고, 그 결과 당신 본풀이들의 내용에서 공통되는 여섯 개의 모티프를 추출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기원형·기본형·성장형·완성형이라는 고정된 구조를 제시하였다.

기원형 : ①남신의 湧出, ②여신의 入道

기본형 : ①남신의 湧出-③坐定の 경위, 또는 ②여신의 入道-③坐定の 경위

성장형 : ①남신의 湧出-②여신의 入道-③坐定の 경위-④결혼

완성형 : ①남신의 湧出-②여신의 入道-③坐定の 경위-④결혼-⑤食性的

갈등과 별거-⑥추방된 아들신의 무용담

여기서 그가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당신 본풀이 巫歌는 현용준에 의해 조사된 70 여 편의 작품들이다.¹³⁾ 이 작품들을 위 4개의 유형에 대입한 결과, 대부분의 당신 본풀이 巫歌들은 신화적인 줄거리의 설화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기원형과

10) 장주근, 『韓國의 民間信仰 - 濟州島의 巫俗과 巫歌』 資料篇 (日本: 金花舍刊, 1974); 장주근, 『韓國의 民間信仰 - 濟州島의 巫俗과 巫歌』 論考篇 (日本: 金花舍刊, 1974)을 참고할 것. 여기에 사용된 자료들이 국내 문헌으로 수록된 것은 장주근, 「제주도 무가 -」, 『국어국문학』 19집 (국어국문학회, 1958); 장주근, 「제주도 무가 二」, 『국어국문학』 22집 (국어국문학회, 1960)이 있다.

11) 특히,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과 『한국 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집문당, 1995)에 실린 논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2) 장주근, 「제주도 당신 신화의 구조와 의미」, 『제주도 연구』 3집 (제주도 연구회, 1986)

13) 현용준, 「제주도 무속 자료 사진」 (신구문화사, 1980);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무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7) 참조

기본형에 속하며, 완성형에 속하는 것은 6·7편에 불과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는 濟州島 神話의 연결 구조는 매우 단순하고 간단함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를 통해 濟州島 村落 生活에 있어서의 堂神 信仰의 종교 체계를 알 수 있고, 문화사적인 발전 단계를 짐작해 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문화사적인 발전 단계란 섬이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중 무용담(⑥번 모티프와 관련)이 영웅 서사시의 싹을 보인다는 것이다.

한편, 장주근은 濟州島의 「三姓神話(乙那神話)」의 근원이 巫歌 이었음을 처음으로 제기하였다.¹⁴⁾ 그는 이에 대해 위 인용문에서 제시한 유형 중, ③번 성장형의 구조와 「三姓神話(乙那神話)」의 그것이 일치함을 근거로, 「三姓神話(乙那神話)」의 형성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三姓神話(乙那神話)」는 애초에 堂 神話에 연원을 두고 구전되다가 필사본 족보(『高麗史』 地理誌의 저술자인 梁誠之 가문의 족보)에 기록 되었다가, 『高麗史』라는 正史에 인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三姓神話(乙那神話)」는 김열규가 제시한 '본풀이는 원형이고 문헌 신화는 그 분과형'이라는 공식의 구체적인 사례로 강조하고 있다.¹⁵⁾

韓國 古典詩歌 研究에 로드의 '구전 공식구 이론(Oral Formulaic Theory)'의 방법론이 적용된 예는 흔히 찾아 볼 수 있다.¹⁶⁾ 장주근 역시 본풀이의 문체 분석을 행함에 이 방법론을 적용하여, 상투적인 표현 어구와 대화를 많이 섞어 쓰고 있는 것이, 본풀이의 문체론적 특성이라고 하였다.¹⁷⁾ 또한 울리크의 서사시 법칙을 적용시켜 본풀이의 서사 내용이 開話의 법칙, 반복의 법칙, 종결의 법칙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본풀이 전승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위 견해들에 대한 실례를 들고 있는데, 심방들에 따라 각자 나름의 상투어구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장주근은 서구 문예 이론의 도입으로 당신 본풀이 巫歌의 구조적 유형을 밝혀, 濟州島 巫歌, 특히 당신 본풀이 巫歌의 문학적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한 공적이 있다. 특히 巫俗 神話와 文獻 神話 사이에 원형과 분과형의

14) 장주근, 「三姓神話 해석의 한 도식」, 『국어국문학』 22호 (국어국문학회, 1961)

15) 장주근, 「구전 신화의 문헌 신화화 과정」, 『李杜鉅 教授 정년기념 논문집』, 1989. : 「三姓神話의 형성과 문헌 정착 과정」, 『탐라문화』 1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16) 특히, 巫歌 研究에서 이 이론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로는, 박경신, 『巫歌의 作詩原理에 대한 現場論的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 논문, 1991)을 들 수 있다.

17) 장주근, 「제주도 무속 신화 ; 본풀이 전승의 현장 연구」, 『제주도 연구』 11집 (제주도 연구회, 1994) 참조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당신 본풀이 巫歌에서 文獻 神話인 「三姓神話(乙那神話)」가 파생되었음을 지적한 것은 특기할 만 하다.

그러나 그는 초기의 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현용준의 조사 자료만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시킨 아쉬움이 있다. 이는 곧 전승 현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을 의미하며, 필연적으로 후기로 가면 갈수록, 연구 결과가 기존 논의에 대한 반복과 재확인에 불과해지는 약점을 드러내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풀이 巫歌의 문체론적 특성에 대해서는, 현용준의 논의와 전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4. 진성기

濟州島 巫俗과 巫歌에 대한 진성기의 연구는 그의 많은 조사 보고서와 저서¹⁸⁾ 속에 분산되어 흩어져 있는데, 『탐라의 신화』와 『남국의 무속』 등을 통해서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그는 당신 본풀이 巫歌에 나타나는 堂神들은 생활상 食性的의 차이에서 흑과 백, 兩派 神의 대립 항쟁의 관계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 일반적으로 외계의 신격이 토착신을 압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降臨神과 外來神이 다른 神보다 최우위에 놓여 있는 것은 濟州島 선주민의 신앙 생활 아래, 그 지역 사회의 정치적 경제사적 배경을 반영한 것이라 하였다.

이는 결국 생업이 서로 다른 두 집단 사이에서 벌어지는 뿌리깊은 갈등의 신앙적 문학적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제주도에서 굿을 하면서 堂神을 식성에 따라 두 쪽으로 나누어, 고기를 먹지 않는 米食派와 고기를 먹어야 하는 肉食派, 일명 白神派와 黑神派의 신들을 각기 별도의 제물을 갖추어 따로 제사하는 풍속이 이런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갈등이 모습이 당신 본풀이 巫歌를 통해 표출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과내깃당 본풀이」가 바로 그런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미식과 백신과 육식과 흑신의 대립은 고조선이나 부여-고구려 건국 신화에서 보이는 천신과 지신의 대립과 상통하면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천신이 지신보다 우

18) 그는 濟州島 民俗 전반에 걸쳐 엄청난 양의 조사 보고서와 연구 결과물을 출판하였다. 이 중에서 이 글에서의 논의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들은, 진성기, 『남국의 민속』(교학사, 1975) : 진성기, 『탐라의 신화』(평범사, 1980) : 진성기, 『남국의 무속 서사시』(정음사, 1980) : 진성기, 『남국의 무속』(형설출판사, 1987) :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민속원, 1991) 등이다.

월하다고 하듯이, 신의 서열 구분에서 백신을 흑신보다 상위에 두는 것이 상례이다. 천신이 지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긴 쪽이 천신쪽으로 자처했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백신을 상위에 두는 것은 농업이 수렵보다 더욱 유익한 생업이라고 하는 생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천신은 항상 남신인 것과는 다르게, 백신은 남신 일수도 있고 여신 일수도 있다. 천신과 지신의 구분은 남녀의 차별을 나타내지만, 백신과 흑신의 다름은 남녀 평등의 관계에서 전개되는 점이 서로 다르다.¹⁹⁾

진성기는 이외에도 이어서 본향당의 형성 유형, 시조신과 당신과의 관계, 단골과 본향당의 관계, 신당과 혈연 관계 등 당신·당·단골의 관계를 살피고 있다. 당신과 조상 숭배, 당신의 내생관, 당신과 단골의 관계, 신당의 발생 등을 다루는 그의 시각은 전체적으로 사회 민속학적 접근 방법을 보인다. 그런데 이 사회 민속학적 방법은 곧 濟州島 巫俗의 독특성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는데, 이는 곧바로 그의 연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소중하다'는 식의 '편협성'의 문제와 만나는 것으로 보인다.

진성기 스스로가 자부하는 바, 과연 그가 평생에 걸쳐 수집한 제주도 유물의 방대함²⁰⁾이라든지, 다양한 장르의 구비 문학 자료의 조사와 발간 업적²¹⁾을 보면, 그가 濟州와 그 民俗에 대한 애착심이 어느 정도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가끔은, 지나친 애착이 현실의 객관적 파악을 방해하는 면이 있음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 진성기의 놀라운 분량의 조사 자료와 그 해석을 대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나타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자료를 뒤적이고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5. 현용준

현용준은 濟州島 巫俗과 巫歌에 대해서, 자료 조사와 그를 바탕으로 한 연구 등 다방면에 걸쳐 중요한 연구 족적을 많이 남긴²²⁾ 이 방면 대표적 연구자다. 특히

19)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문화과 지성사, 1997) p.79. 참조

20) 그는 私設 제주민속박물관 관장이기도 하다. 그가 발한 바에 따르면, 1987년 당시 제주대학교 박물관 소장 유물이 2,379점인데 비해, 그의 제주민속박물관 소장 유물은 3,000 점이 된다고 한다. 이를 보아서도 그의 제주 민속 유물에 대한 애착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21) 그가 조사하여 발간한 자료를 보면, 제주 민요 1,500 수, 제주 설화 100 편, 제주 무가 500 편, 제주 속담 1,500 수, 제주 지명 유래 1,200 수, 제주 세시풍속 300편, 제주 수수께끼 500 편, 제주 굿가어 1,500 편 등이다. 『남국의 무속』(형설출판사, 1987) 참조

濟州島 巫歌 研究의 檢討와 展望

그의 濟州島 巫歌에 대한 연구는 『巫俗 神話와 文獻 神話』²³⁾에 모여져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여기서는 巫俗 神話인 본풀이의 개념에서부터 발생과 성장, 표현 형식과 구성 그리고 내용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당시 본풀이 巫歌의 형성과 기본 형식, 내용 구성과 배경 민속신앙 등을 아울러 밝히고 있다.

『巫俗 神話 本풀이 研究 序說』에 의하면, 본풀이는 巫俗 祭儀의 일부분으로 노래 불려지는 신의 내력담이다. 동시에 그것은 서민의 소박한 지식과 도덕관, 정서와 꿈이 신격을 통해 유로된 구비 서사문학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무속 신화는 우리 민족의 원초적 신앙과, 속신의 해명에 직접적 자료가 될 뿐 아니라, 생업이나 사회 관습의 해명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濟州島 堂 神話考』에 의하면, 이들 당 신화들은 신명의 호칭과 기도사로 된 단순한 무속 제의로부터 기원하여, 신격 해설·좌정 유래 해설·직능·단골 등을 갖춘 기본형을 형성하고, 이에 민속 설화적 요소가 결부 조화되어 성장해왔다. 이는 도민들이 생활을 위해 직접 부딪쳐 온 자연적 역사적 환경의 현실적 요소 중에서 커다란 관심사를 신격 중심으로 집적 조화시켜 놓은 것이다. 또 그것은 조상 숭배를 기반으로 하여, 도민들의 신앙의 성장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 연구는 濟州島 巫歌 특히 당시 본풀이 巫歌에 대한 최초의,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현재에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방면의 선구적 업적들이다.

한편, 현용준은 「三姓神話 研究」에서 濟州島 神話인 「三姓神話(乙那神話)」를 본격적으로 분석하여, 地中湧出·箱舟漂着의 모티브는 堂 神話에서 차용된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三姓神話(乙那神話)」는 본래 三姓氏族의 조상 본풀이요, 이 씨족이 숭상하던 당 본풀이적 신화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三姓神話(乙那神話)」의 계통과 형성의 문제는 제주 원주민의 문화적 종족적 계통을 암시해주는 것이고, 三姓穴 및 그 祭儀가 본래 巫俗적인 것임을 암시한다고 하였다. 이는 堂 神話에 대한 전반적이며 본격적인 연구로, 神話論·傳播論 등을 토대로 한 비교 민속학적 방면의 뚜렷한 업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비교 민속학적 방면의 뚜렷한 특징이 바로 傳播論의 前提²⁴⁾에

22) 현용준, 『제주도 무속 자료 사전』(신구문화사, 1980);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김문당, 1986); 현용준, 『巫俗 神話와 文獻 神話』(김문당, 1992);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무가』(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7) 등의 업적이 있다.

23) 현용준, 『巫俗 神話와 文獻 神話』(김문당, 1992)

대한 강한 의구심을 동시에 낳게 한다. 즉 그에 의하면, 「三姓神話(乙那神話)」에 보이는 地中湧出·箱舟漂着의 모티브들은 南方系 神話 要素들이다. 이는 濟州島 巫歌의 전체적 성격을 북방계와 남방계의 결합으로 보는 그의 시각과도 긴밀히 관련된 문제다.²⁴⁾

원래 '남방 문화론'은 그 남방이라는 개념과 지역이 일제의 침략 전쟁과 관련된 '대동아공영권'과 연결되면서, 식민 지배에 대한 피해 의식으로, 그동안 학계에서는 용어 사용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문헌 신화보다 그 모티브적 요소가 다채롭게 전개되는 무속 신화의 경우, 그 연원을 캐는 연구에서는 '남방 문화론'을 포함한 傳播論의 前提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제기된다.

논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현재 이 문제는 그 문제의 실상과 해석에 대한 개방적 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꺼림직한 문제가 될만한 논의는 아예 문제삼지 않는 우리 학계의 병폐가 낳은 하나의 부산물일 것이다. 일본에서는 '남방 문화론'을 상식으로, 한국에서는 논리적 근거없이 '남방 문화론'의 용어 사용 자체를 불온시하는 이런 상황이 그냥 지속된다면, 서로의 감정만 더 쌓이고 결국 양국간의 올바른 문화 교류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왜, '남방 문화론'이 문제이고, 그것이 잘못된 개념이면 왜 그런지를 명확한 논쟁의 지평위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

6. 이수자

이수자는 장주근·현용준 등의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濟州島 巫俗과 神話에 관한 博士學位 論文을 제출하였다. 이 논문은 국내에서 제출된, 濟州島 巫俗과 巫歌에 관한 최초의 博士學位 論文이다.²⁵⁾

이 연구의 목적은 濟州島 巫俗 儀禮 중 큰 굿과 여기에서 불리우고 있는 神話들의 위상과 의의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논자는 우선 채록해 놓은 자료를 보면서, 구조적 원리에 따라 현행되고 있는 큰 굿의 순서를 조정하여, 내적인 구성

24) 傳播論의 前提의 개념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홍규, 「傳播論의 前提와 比較文學의 問題」, 『문화와 역사적 인간』 (창작과 비평사, 1980)이 명쾌한 해석을 하고 있다.

25) 최근 탐라 건국 신화에 대한 신용하의 새로운 학설은 바로 이에 대한 강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탐라의 문화적 성격은 철저하게 북방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자세한 것은 신용하, 「탐라국의 형성과 초기 민족이동」, 『한국학보』 90집 (일지사, 1998·봄)을 참조할 것.

26)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논문, 1989)

濟州島 巫歌 研究의 檢討와 展望

원리에 따른 큰 굿 개별 의례의 순서를 재구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제주도 큰 굿에 관한 연구는 내재된 원리에 맞추어, 큰 굿의 순서를 재조정해 놓았을 때, 그 성격이 보다 분명하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논자는, 초감제 중에 행해지는 의식 중의 하나인 '젯드리얏혀살려움'에 나타난 신들의 위계질서에 주목하고, 여기에 큰 굿에서 불리우는 본풀이들을 대입시켜 내재적 원리를 도출해 내고 있다. 그 결과 재구성된 제주도 큰 굿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1)초감제 (2)불도제 (3)초공제 (4)이공제 (5)삼공제 (6)시왕제 (7)맹감제 (8)세경제
(9)칠성제 (10)문전제 (11)분향제 (12)일월조상제 (13)중합삼신의례

위와 같이 재조정된 제주도 큰 굿의 구조적 모형과 현용준의 조사에 나타난 큰 굿의 제차구성²⁷⁾과 비교해 보면, 처음과 끝은 원모습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중간에 개별 제차들에서는 부분적인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틀은 유지되어 있고, 중요한 본풀이들이 다 남아 있어 전체적인 내용은 그대로 잔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논자에 의하면, 이렇게 재조정된 큰 굿의 원형적 구조에서 각 개별 제차들의 제의적 성격을 살펴본 결과, 그것들이 순차적이며 매우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즉 (2)번에서 (7)번까지는 생과 사, 사후의 일, 운명, 長命 등과 관계하여 한 개인의 평생에 관한 원론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제차이며, (8)번과 (9)번은 인간 삶의 행복을 위한 제일 긴요한 문제인 食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제차이고, (10)번에서 (12)번에 이르는 제차는 토지 수호신 및 집단의 조상신과 수호신과 관련된 것으로, 거주지역의 안전을 중시하고 현실적 삶의 평안 유지에 대한 바람을 담고 있는 제차라는 것이다. 또 이러한 구조는 우주적 층위[(1)에서 인간 삶의 존재론적 층위[(2)~(7)], 사회적 층위[(8)~(12)]로 나아가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놀라운 사실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문전제와 분향제를 두어 제의가 어느 곳에서 행

27) (1)초감제 초신맞이, 초상제, 추물공연, 석살림, 보세감상, 관세우 (2)(4)불도맞이(수룩침, 할망본풀이, 마누라본풀이, 질침, 꽃타림뜸, 이공본풀이, 악심꽃격음) (2)일월맞이 (3)초공본풀이 (3)초공맞이 (4)이공본풀이 (4)(5)이공맞이 (5)삼공본풀이 젯상제 (6)(7)시왕맞이(방광침, 혜심곡, 차사본풀이, 스만이본풀이, 지장본풀이) (8)세경본풀이 요왕맞이 제오상제 (5)삼공맞이 양국숙임 (8)세경놀이 (10)문전본풀이 (11)분향드리 (9)각도비님 (13)영계둘러세움 군웅만관 물놀이 도진가수리 뒤맞이 : 이상은 현행되고 있는 큰굿의 개별제차이다. 이 중에서 괄호 안의 번호는 재구성된 큰 굿의 모형에서의 차례이다. 자세한 것은 현용준, 『제주도 무속 자료 사진』(신구문화사, 1980)을 참고할 것.

해저도 구조적인 변함이 없이 행해질 수 있도록 의도했고, 그 결과 큰 굿이 마을에 따라 집단에 따라 자유자재로 특성을 살리면서 개별적으로 행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에서 논자는 다시금 제주도 큰 굿은 매우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구성 원리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해 내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巫歌는 문학적 텍스트일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巫俗 儀禮에서 구송되는 노래이다. 따라서 巫歌의 연구에 있어서 巫俗 儀禮와의 상관성을 살피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濟州島 巫俗 儀禮중 큰 굿을 중심으로, 자료의 종합적 고찰을 시도한 이수자의 연구는 의의가 있다. 또한 濟州島 巫歌 자료의 꼼꼼한 독해 역시 이 논문의 미덕이다.

하지만 방대한 자료를 읽어내는 연구자의 노력에 비해, 이것을 해석해내는 분석력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만하고 평면적인 서술, 현장 조사의 부재에서 오는 오류, 문학적 텍스트를 통해 祭儀에 접근하는 방법론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濟州島 큰 굿의 구성 원리, 큰 굿을 형성했던 집단의 의식에 관한 일반론등이 상식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주의깊게 고찰되어야 한다. 특히, 한반도 본토의 巫俗 儀禮가 보여주는 열두 거리와의 상관성에 관한 언급에서, 세계적 보편성 운운의 어투는 재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7. 조동일

애당초 불문학도였다가, 口碑文學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통해 국문학도로 변신한 조동일의 첫 저서가 『서사민요 연구』²⁸⁾였음은 주의깊게 음미되어야 한다. 그는 이후 소설사, 문학사상사, 비교문학사 등에서 엄청난 양의 연구 성과물을 남기고 있는데, 최근의 연구가 구비 서사시의 비교 연구임은, 그의 국문학 연구 출발점과 같이 건주어 생각할 때,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²⁹⁾은 세계문학사 이해에서, 유럽 문명권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동아시아 문학의 동질성을 확인하며, 세계문학의 판도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에 동아시아 구비 서사시의

28) 조동일, 『서사민요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70)

29)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1997)

濟州島 巫歌 研究의 檢討와 展望

형성과 변천을 해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濟州島 巫歌에 대한 연구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조동일의 대체적인 의도이다. 여기서는 이 방대한 양의 연구서 중에서, 濟州島 부분만을 중심으로 하여, 그 성과와 문제점을 지적해 보기로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논자는 우선 동아시아 서사시의 전개 단계에 대해 '원시 서사시→고대 서사시→중세 서사시'라는 구도를 그려 놓고 있다. 이 구도에 의해 濟州島의 구비 서사시, 즉 당 본풀이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서술의 방향은 논자가 제시한 동아시아 서사시의 전개 단계에 따라 '신앙 서사시, 창세 서사시, 여성 영웅 서사시, 남성 영웅 서사시, 신앙 비판 서사시, 범인 서사시'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중점을 두고 다루어지는 것은 영웅 서사시이다. 왜냐하면 고대 서사시에 속하는 영웅 서사시는 濟州島 특유의 형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동일이 濟州島 巫歌 연구의 주요 텍스트로 삼고 있는 것은 당시 본풀이 巫歌이다. 이 중에서 남성 영웅 서사시에 속하는 작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괴내깃당 본풀이」와 「송당본향당 본풀이」다. 그것들은 탐라 건국 서사시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고대 서사시의 유산으로 여러 마을에서 각기 전승해서 같은 유형의 각편이 여럿이 동시에 구전되고 있어, 한국이나 세계를 통틀어 보아도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소중한 자료라는 것이다.

탐라 건국 서사시의 형성 과정에 대한 조동일의 구도는 다음과 같다. 한 지역에서 전승되던 「괴내기도 서사시(괴내깃당 본풀이)」가 탐라국 전체의 「문곡성 서사시(송당본향당 본풀이)」로 확대되었다가, 그것들을 만들어낸 통치자가 다른 통치자들과 연합하고, 그 내력을 서사시 자체를 개작하여 밝힌 「三姓 서사시」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탐라국이 망하자 이 「三姓 서사시」는 서사시로 구전되지 못한 채, 서두 부분만 「고려사」에 기록되어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논자는 당시 본풀이 巫歌가 고대 문학의 유산이라는 것은, 그 안에 고대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그 안에 왕국의 정권 교체가 부자 사이의 싸움으로 나타나며, 힘이 있으면 영웅이고 영웅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경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고대적인 사고 방식이며 고대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고대문학의 유산이었던 남성 영웅 서사시는 탐라국이 본토 복속 이후 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격의 변화를 야기했다고 본다. 즉 더 이상 영웅 서사시를 통해 중앙 정부에 대한 제주도민의 항거의 의지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논자는 제주도 토착 세력의 대표자는 巫堂이 아니면 衙前이었기에, 영웅 서사시의 주인공으로 숭앙되기 어려웠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제주도가 본토에 귀속되면서 중세화가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생산된 서사시들은 더 이상 영웅을 등장시키지 못한다. 대신에 범인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일을 다루는 서사시, 즉 생활 서사시들을 만들어 내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중에서, 특히 「세경 본풀이」는 당 본풀이에서는 찾을 수 없는 사랑의 성취에 대한 여성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면서, 巫歌의 신앙적 기능보다 문학적인 기능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중세 서사시 또는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서사시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서사무가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조동일이 濟州島 巫歌의 史的인 전개 과정에 대한 구도를 제시하고, 巫歌의 解析에 역사적인 맥락을 끌어 들인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동시에 그 방법상의 단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논자는 구비 서사시에 관해서는 제주도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보고 있다. 신앙 서사시, 창세 서사시, 여성 영웅 서사시, 남성 영웅 서사시, 신앙 비판 서사시, 생활 서사시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술의 내용은 남성 영웅 서사시, 생활 서사시에 집중되어 있다. 결국, 그의 논의 구도를 따라가다 보면, 신앙 서사시, 창세 서사시, 신앙 비판 서사시 등은 하위 장르 유형이 아니라 모티프, 소재적 차원의 분류에 불과하게 된다. 가령, 그는 창세 서사시로 들고 있는 「천지왕 본풀이」를 논하면서, 이것은 일반 본풀이 巫歌³⁰⁾에 속한다면서, 논의를 내용소에 관한 설명으로 국한시킨다.

또, 여성 영웅 서사시에 속하는 「할망 본풀이」를 다시 또 성자 서사시에 넣어 설명하고 있으며, 생활 서사시에 속하는 「이공 본풀이」는 신앙 서사시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은 서사시의 유형 분류가 논자의 전체적인 구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소재적 차원에서 이루진 것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더불어 자신의 전체적인 구도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서술이 많음을 지적할 수 있다. 가령, 그가 성자 서사시라고 할만한 것을 제주도에서는 찾기 어렵다. 그런데도 구태여 이 항목을 설정한 것은 ‘장차 다른 곳의 서사시를 분류할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30) 조동일의 구도에 따르면, 이는 중세문학에 해당한다.

8. 과제와 전망

지금까지 연구자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고찰한 바와 같이, 濟州島 巫歌에 대한 자료 조사와 그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학계의 일각에서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濟州島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하여, 연구자들 사이에 방법론적 합의를 얻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독자적인 방법에 의해 연구를 계속해 왔고, 나름의 성과를 이룬 것도 사실이다.

현 시점에서 濟州島 巫歌 研究의 과제와 전망을 생각해본다면, 우선 대략 두 가지 방향점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濟州島 巫歌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성에 더욱 주목하고, 이를 통해 현상을 인식하는 의미망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巫歌에 나타난 濟州島의 문제나 현상을 통해, 세계와 인간의 실체를 해명하고 이해하는 濟州人들의 의식을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濟州學의 일부로서 巫歌 研究가 존재하는 경우가 된다.³¹⁾

둘째는, 濟州島의 고유한 문제와는 상관없이 巫歌에 나타난 적절한 소재를 선택하고 주제를 찾아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서 濟州島의 문제는 연구자의 연구 내용을 확대하거나 심화시키는 한 방편이 될 것이고, 단지 이해의 수준을 높여 줄 뿐인 것이다. 濟州島 巫歌를 포함한 巫歌의 보편적 성격을 강조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어떠한 방향점을 설정하더라도, 우리가 巫歌를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다루는 한, 여기서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연구 과제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濟州島 巫歌 研究는 민속학적 방법, 종교학적 방법, 사회학적 방법, 신화학적 방법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그러한 연구를 문예학적 방법으로 종합해보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에 유의하여 다음에서 그 연구 과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한다.

- ① 이본 연구
- ② 본풀이 양식의 문학적 특성에 대한 장르론적 연구
- ③ 전기로서의 무속신의 일생담과 소설과의 대비
- ④ 무속신의 일생담의 사회 역사적 의미

31) 현길언, 「제주학 연구 방법론 ; 문학을 중심으로」, 『제주도 연구』 14집 (제주학회, 1997) 참조

- ⑤ 모티브의 분석
- ⑥ 신화적 상상력의 고찰
- ⑦ 서술 양식의 문제
- ⑧ 서사 구조의 분석
- ⑨ 제주 방언의 특성과 언어 사용의 문제
- ⑩ 작품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문제

지금까지 검토한 선학들의 업적을 바탕으로, 濟州島 巫歌의 각 작품군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 양상들을 세밀하게 분석한 碩士學位 論文³²⁾들이 보여주는 성과가, 巫歌에 대한 문예학적 접근 방법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필자는 최근에 巫歌를 포함한 제주의 고전문학 연구를 통해, 문학 연구나 제주학의 일환으로서의 연구를 벗어나, 학문적 보편성을 추구할 수 있는 영역의 개척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제는 여성 문제³³⁾·생태 문제 등이 있는데, 구체적 효용성의 유무에 따라 영역을 더 확장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동학들의 관심과 참여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32) 강정식, 『제주 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논문, 1987) : 윤교임, 『여성 영웅 신화 연구 ; 초공 본풀이·삼공 본풀이·세경 본풀이에 대한 문화기호학적 해석』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1995) : 부희숙, 『제주 서사무가에 나타난 어휘형성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1998) : 정진희, 『제주도 당 본풀이의 유형과 변천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논문, 1999)

33) 필자는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제주도 무가에 형상화 된 여성(신)의 성격』, 『제주도 연구』 15집 (제주학회, 1999) : 『제주도 잠수들의 생활과 민요』, 『탐라문화』 20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9)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논문들은 모두 출처, 『시가와 시가교육의 탐구』 (월인, 2000년 12)에 실려 있다.